



▷ 폐쇄된 국민학교를 창작실로 새단장한 한창스님의 작업 모습.

폐교된 敎舍를 미술포교에 활용한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미술센터 개원

폐교된 국민학교 교사가 불자 미술인들의 창작실로 단장됐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에서 지난 23일 문을 연 전북미술문화센터(총장 한창스님)는 폐국민학교 건물을 창작실과 상설 전시장으로 꾸민 새로운 불교미술의 명소,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가 9명이 입주한 이 미술문화센터는 교실 10개와 강당 1개를 미술의 창작과 전시실로 꾸며 만든 것.

한창스님등 9명 원력모아 강좌·전시 문화마당으로

지역청년들에게 영산작법 강의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정음의 한 사찰에서 여름미술학교를 통해 포교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미술문화센터를 미술교육과 포교의 마당으로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3일 전북미술문화센터 개원식에는 조남조 전북도지사와 지역 미술인 및 학생, 불교신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관촌동 백상갤러리에서 기획전을 가졌던 김한창스님의 주도로 문을 열게 된 이 미술문화센터는 창작, 전시 외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마당으로도 개장된다.

김한창스님은 "신도들을 초청해 미술법회를 가질 계획이며 인근의 신령국민학교에 미술반을 개설해 미술지도를 할 생각"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스님은 방학을 이용해, 무료 미술학교를 열고

'함께 피을 육화의 연꽃' 통일문화제 7월1일 등국대 만해광장서 열린다

불자들의 통일 염원을 대형 야외 무대로 집중시키는 통일문화제가 오는 7월1일 등국대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분단의 장벽을 걷고 민족불교 자주의 시대를 열 제2회 통일문화제 '함께 피을 육화(六

和)의 연꽃'은 작년의 음악제라는 한정된 소재의 행사에서 벗어나 음악제뿐 아니라 미술제, 무용제 등 광범위한 문화대축제 마련을 위한 도약의 장으로 기획됐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3개년 프로젝트로, 작년 20여명의 조계사 임시무대보다 무려 3배나 되는 60여명의 공간에 출연을 이태범씨등 스태프진과 2천여명이 함께하는 초대형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 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p>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p>부산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051-634-5114 <p>광주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062-375-9986 <p>대구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053-427-8008 <p>경기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032-613-4027 <p>목포보급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0631-281-2534 <p>공주보급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0416-856-3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스 051-634-5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스 062-371-7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스 032-665-0965
--	--

불교음악계 저작권등록 추세

유료공연엔 사용료... '특약' 경우 예외

일부 불교음악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저작권협회에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인 공연에서 연주되는 불교음악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의 지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찬불가는 누구든지 아무곳에서나 자유롭게 부르고 공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반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모방이나 표절로부터 보호받고 공연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 관리규정에 종교음악에 대한 특혜가 적용되지 않

는 현실에서 이같은 이견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또 '저작물의 보호는 당연한 것'이란 만큼 불교음악 작가들도 작품성으로 경쟁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찬불가는 전방과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저작권 관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가는 변규백, 박법훈, 서창업(서운재씨가 권리 승계) 씨 등을 비롯 7~8명선으로 알려져 있다.

변씨의 경우 작년 10월에

협회에 가입 '천수천안관음송가' 등 1백곡 이상을, 박씨는 국악곡종 126곡종 불교음악 '아제아제' '보현행원송' 등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곡들은 입장료를 받고 공연할 경우 저작물 사용료를 내야한다. 요금은 1천석 공연장 규모에 1만원의 입장료를 받을 경우 1곡당 2만 1천원 가량이 적용된다. 문체부의 규정에 의한 이 사용료는 1곡의 길이를 5분 정도로 정하고 있어 20분 분량의 곡일 경우 배가 적용되게 된다.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

목일 경우 사전 사용신고제가 원칙이지만 사후신고 내지 추적 작용이 대부분이다. 작가와 사용자의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 특약이 우선시 되고 사용료 분배는 등록회원에 한한다.

불교음악의 저작권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작가들의 좋은 작품 만들기 노력, 그리고 찬불가의 특수성 인정부분 등이 저작권 등록 작가가 늘어날수록 교계 음악계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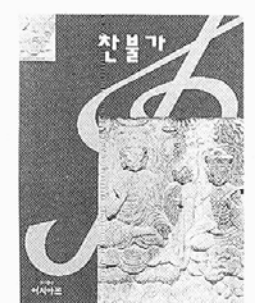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故서창업씨 유작 모은 찬불가집 출간

도서출판 여시아문, 장소·쓰임새따라 130곡 분류



▷ 故서창업씨



어 전체를 한눈에 색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운재씨 인터뷰

"부친의 평생작업 책으로 묶었어"

"(찬불가는) 생전에 아버지가 못다한 작업이죠.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뜻을

찬불가의 시원을 개척한 故서창업씨의 유작을 중심으로 한 찬불가집이 출간됐다.

'동글고 밝은 빛' '홀로 피는 연꽃' '반야심경' 등 찬불가 창작에 한 생을 살다간 故서창업씨의 유작과 정부가 변규백 김용호씨의 찬불가를 한데 모은 <찬불가>(도서출판 여시아문)가 그것.

서운재씨가 엮어 낸 <찬불가>는 총 296곡으로 <찬불가 100곡집>중 <국악곡종> 대부부의 곡과 수사본(手寫本)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 故서창업씨의 곡, 쉽고 대중적으로 연주되고 있는 곡종 1백30곡의 찬불가들을 담고 있다. 또 불리워지는 쓰임새와 자음의 순으로 정리돼 있

특히 생활 속에서 수행의 힘이 될 수 있는 내용만을 담은 찬불가 '수행선법가'를 따로 분류했다.

서운재씨가 엮어 낸 <찬불가>는 총 296곡으로 <찬불가 100곡집>중 <국악곡종> 대부부의 곡과 수사본(手寫本)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 故서창업씨의 곡, 쉽고 대중적으로 연주되고 있는 곡종 1백30곡의 찬불가들을 담고 있다. 또 불리워지는 쓰임새와 자음의 순으로 정리돼 있

현대미술 이해하기-손에 의한 그림전

이석조·이월중씨 작품 전시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현대미술 가깝게 이해하기-손에 의한 그림전'에 불교화가 이석조씨와 이월중씨의 만다라를 주제로한 작품이 출품된다.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조선일보전시관에서 전시되며 전시작품들은 CD롬으로도 제작된다. 동산방화랑과 다인테크(주)가 후원하는 이 전시회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이해시키는 데 기획의 중심을 두고 있다.

도필선 기자

달마·혜능대사등 육대선사를 만날 기회 중국작가 이전기 초대전 개최



부산 학교법인 동성고등학교 대강당(대연동)에서 개최된다.

한·중간의 문화교류를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육대선사외에도 다양하게 응신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금상에 윤보상씨 '맥' 대한불교신문 사진전

대한불교신문사가 개최한 제4회 한국전통문화 사진전에서 윤보상씨가 '맥'으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 1천81점이 출품된 이번 사진전에서는 또 '불심'을 낸 조대근씨가 은상을, '불불심'을 출품한 성홍창씨가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수상작품의 전시회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부산국제문화센터 대전실에서 열린다.

달마대사에서 혜능대사까지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중 교역개발추진회사의 주최로 마련되는 중국 자금상 '이전기 초대전'은 지난 27일 까지 운현미술관에서 열린 데 이어 7월2일부터 12일까지

김희경 작곡집 출시

내달초, 찬불가요동 담아

찬불가 작곡가 김희경씨의 신작 작곡집이 카세트 테이프와 CD로 내달초에 출시된다.

(주)태광레코드가 기획 제작하는 김씨의 작곡집에는 지난 달 28일 본사(本社) 초청에서 첫선을 보인 찬불가요동 '홀로 보낸 겨울'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면 어찌나' 등이 수록된다.

청년들을 위한 불교이야기

나는 오늘 부처님을 만났다!

이야기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어 갑니다.

이·아·기·로·불·어·산·부·처·님·의·전·기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도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생과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벗어 버린 진정한 해탈을 가르쳤던 석가. 그의 구도의 생애와 진리의 가르침을 여기에 집대성한 것이다.

김형준지 · 280원 · 5,500원

이·아·기·로·불·어·산·부·처·님·의·전·기

코끼리의 눈물

부처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슬이야기?

<현 우경>의 내용을 22가지의 재미있는 유허로 풀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안영선의 '이슬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는 불교우화집!!

고우익지 · 212원 · 5,000원

이·아·기·로·불·어·산·부·처·님·의·전·기

살아있는 모든것은 다 행복하라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경전<수타니파타>중에서 주옥같은 법문만을 골라 명쾌한 편찬이 되어 놓았다. 삶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삶에 대한 석가의 깊은 성찰이 담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준다.

이희숙지 · 272원 · 5,5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재 2동 320 개평빌딩 **달일** 전화 5290140-5 팩스 5792312